

웨스터 민스터신앙고백서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1항

자연 계시를 보아도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선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선을 행하시는 것이 계시되고 있다.

(1) 인간은 전심 전력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를 사랑해야 하며, 그를 찬송해야 하며, 찾아야 하며, 믿어야 하며, 섬겨야 한다 (롬 1:20; 수 24:14; 시 18:3; 31:28; 62:8; 119:68; 렘 10:7; 막 12:33; 행 17:24; 롬 10:12).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1항

(2)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바이다. 그것은 그의 계시하신 의지, 곧 성경 말씀으로 한정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인 또는 사단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기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 (출 20:4~6; 신 4:15~20; 12:32; 마 4:9~10; 15:9; 행 17:25; 골 2:23).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2항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
 계만 드려야 된다 (마 4:10; 요 5:23; 고후 13:14).

(1) 천사들에게나 별세한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예배하지 말 것이다 (롬 1:25; 골
 2:18; 계 19:10).

(2) 아담의 타락 이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
 할 수 없다.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뿐
 이다 (요 14:6; 엡 2:18; 골 3:17; 딤후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14:6)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3항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수한 부분이다 (빌4:6).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다 (시65:2).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상달 되려면, 그것이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고 (요14:13, 14: 벰전 2:5),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롬 8:26),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13)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3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고 (요일 5:14), 깨닫는 마음과 경외와 겸손과 간절함과 신앙과 사랑과 인내로 실행하여야 하고 (창 18:27; 시 47:7; 전 5:1~2; 마 6:12,14~15; 막 11:24; 엡 6:18; 골 4:2; 히 12:28; 약 1:6~7; 5:16), (대표로 기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한다 (고전 14: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14)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4항

기도자는, (1) 합당한 것을 간구해야 하며 (요일 5:14), 현재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장차 나서 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룻 4:12; 삼하 7:29; 요 17:20; 딤펴전 2:1~2). 그러나 (2) 죽은 자를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삼하 12:21-23; 눅 16:25~26; 계 14:13), (3)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 것이다 (요일 5:16).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
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기 4:12)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5항

예배에는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실행된다.

- (1) 경외심으로 성경을 봉독 해야 하며 (행 15:21; 계 1:3),
- (2)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하며 (딤후 4:2),
- (3)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신앙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사 66:2; 마 13:19; 행 10:33; 히 4:2; 약 1:22),
- (4)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를 노래해야 하고 (엡 5:19; 골 3:16; 약 5:13),
-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5항

위의 모든 규례들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에서 실행될 일들이다 (마 28:19; 행 2:42; 고전 11:23~29). 이 밖에 특수한 경우에 종교적 맹세와 (신 6:13; 느 10:29) 서원과 (전 5:4~5; 사 19:21) 엄숙한 금식과, (에 4:16; 율 2:12; 마 9:15; 고전 7:5) 감사 예배(에 9:22; 시 107편) 등이 있다. 이런 행사들은 때를 따라 거룩하게 또는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28)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6항

복음시대에도 기도나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혹은 그곳을 향해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다 (요 4:21).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말 1:11; 딤편 2:8)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다 (요 4:24, 2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11)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6항

이런 예배는 가정적으로 (행 10:2; 신 6:6~7; 삼하 6:18, 20; 욥 1:5; 렘 10:25; 벧전 3:7) 날마다 할 수 있고 (마 6:11),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다 (엡 6:18; 마 6:6). 특별히 공중 예배집회는 보다 엄숙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공중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므로 (눅 4:16; 히 10:25; 잠 1:20~21, 24; 8:34; 사 56:6~7; 행 2:42; 13:42),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5)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7항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도 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이레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출 20:8, 10~11; 사 56:2, 4, 6~7).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8)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7항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중 첫날로 바뀌었다 (행 20:7; 창 2:2~3; 출 31:17; 고전 16:1~2). 이 날을 주일(主日)이라고 하며 (계 1:10),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마 5:17~1; 출 20:8, 10).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18)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 8항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1) 그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2)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사 58:13; 출 16:23, 25~26, 29~30; 20:8; 31:15~17; 느 13:15~19, 21~22), (3)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마 12: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 내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11)